

# 전북도, 관계인구 확대 프로젝트 시동

## 서울시 50+세대 대상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 추진

전북도가 지역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알리고, 실질적인 관계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 서울 50플러스 재단과 협력, 서울시 50+세대를 대상으로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은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서울시 50+세대를 전문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북 소재 기업(기관)에 배치해 컨설팅, 판로개척 등 지역체류를 통해 활동 수행과 지역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 50+재단과 지속적인 협의(5회)를 통해 (서울시 50+재단) 퇴직 또는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세대 등의 일자리 기회 제공, (전북도) 지역소멸위기에에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구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는 상상협력의 모델로 올해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은 서울

50+재단에서 모집과 교육을 담당하고, 도와 시·군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지역 활동처를 모집, 현장인턴십 등 지원,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시 50+ 재단에서는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서울시 50+세대를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전교육과 활동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파견(5월)하고 도와 시·군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무주·임실·부안 활동처

에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현장활동 인턴십과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 공동으로 9월에 참여자 만족도 조사, 평가 회의, 경험공유 간담회 등을 통해 성과를 논의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역소멸위기 상황에서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도농간 상상협력사업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 모델로 정착하고, 서울 50+재단과 협력 확대 뿐만 아니라, 청년층, 기업체 등과 협력을 통해 관계인구 확대 농촌 활력방안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준공 기념 예배 전북도는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에서 (사)전북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준공을 기념하는 예배를 진행했다.

# 고군산군도 해양레저관광 사업 현장점검

##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많은 관광객 찾는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로 조성"

전북도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지난 18일 고군산군도를 찾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고군산군도 일원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무녀도(64.771㎡)에 내넌 말까지 387억

원을 투입해 해양레저체험센터, 인공서핑장, 파도풀, 캠핑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신시도 외 3개 도서에 특산물 판매대 설치, 차도선 점안시설 설치, 노후도로 확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 182억 원을 투자해 관광·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은 노후 인도교인 장자교, 선유교를 야간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바닥판 교체 및 경관조명을 설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예정이다.

나해수 국장은 현장에서 담담 부서장의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 관련 시설을 꼼꼼하게 살폈다. /유호상 기자

또, 사업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섬이었던 고군산군도가 새만금 방조제로 연속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많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사전에 파악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나해수 국장은 "전북도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진 중인 사업들간 연계가 중요하다"며 "고군산군도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나라꽃 무궁화 축제' 완주서 열린다

지역행사 개최지 '12년 연속 선정' 쾌거 8월 13일부터 고산문화공원 일원서 개최

전북도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2022년 '제32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지역행사 개최지로 완주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를 개최하는데,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고 방문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국에 지역행사 개최지를 신청받아 선정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북도 완주, 경기도 수원, 안산, 강원도 홍천이 선정됐으며, 완주군은 12년 연속 개최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완주군은 전국 나라꽃 무궁화 명소 2회 선정, 2019년 무궁화 관련 국가상징 선양 유공기관 대통령 단체표창 등 무궁화 사랑에 대한 결실을 꾸준히 맺고 있다.

완주 무궁화 축제는 오는 8월 13

일부터 완주 고산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으로, 분화 및 작품 전시, 무궁화 관련 체험프로그램·그림대회·보물찾기, 야간공연, 무궁화 나누어주기 등 3일간에 걸쳐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무궁화 분화 나눠주기 행사로 대체했다.

한편, 도는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시 함께 개최되는 무궁화 우수 분화 품평회에 전북도내 아름다운 무궁화 분화를 출품하고, 알리기 위해 군산, 완주, 산림환경연구소 등과 함께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많은 꽃들이 숨어 있는 무더운 8월에도 흰 꽃이 피는 꽃이 바로 무궁화다"면서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선양하고, 보급하는데 전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사회서비스원, 온라인 '사서원의 마음편지' 발송

전북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온라인으로 '사서원의 마음편지'를 발송하고,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2월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 현장과 소통하며,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현장방문 인터뷰 '찾아가는 사서원' 등 사회서비스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의 장을 열고 있다.

이번 '사서원의 마음편지'를 통해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과 운영 방향을 나누고, 사회서비스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민지 민간지원팀장은 "개별 이후 본격적인 사업 시행과 함께, 사회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열어 사회서비스 현장과 함께하는 전북사회서비스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업무협약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과 국민연금공단은 데이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전북연구원 이외에도 전남도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가 참여했다.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5개 민·



관·학을 주축으로 발족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매월 정례 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업무협약식 종료 후 25회차 정례 모임을 진행했으며 1부는 전북 빅데이터 공동연구회 산·학·연 콜라보레이션 사업제안, 2부는 동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반려동물 관점 질환 진단, 3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법, 정책, 우수사례 소개로 정례 모임을 마쳤다.

이강진 연구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이 전북도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책 기회단계에서부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전북도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최종 결정 공시를 앞두고,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장·군수가 올 1월부터 273만여 필지의 토지 특성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

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재검증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도 전체 375만 필지의 약 73%인 273만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통합민원 시

스템인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kras.jonbuk.go.kr/)과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29일에 최종 결정·공시한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